# 태초의 주체, 태아(太我)

## (창1:3~25)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태초의 주체, 태아(太我)>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태초의 주체, 태아(太我)' 태아는 클 태(太) 자에 나 아(我) 자를 써서 태아(太我).

불교에서는 진아(眞我)라는 말을 쓰지요, 참 나, 열반에 도달했을 때의 마음을 진아(眞我)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의 자아는 그냥 실재한다는 의미에서 진아(眞我)입니다.
그런 자아들 중에 태초에 자아가 있었는데 시작들 중에 가장 큰 처음을 태초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아들 중에 가장 큰 자아를 태아(太我), 하나님의 자아죠, 하나님의 자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드디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이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이야기와 함께 늘 따라 붙어 다니는 논란이 있잖아요,
진화론과 그리고 진화론 대신에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빅뱅이론, 이 세상 만물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조그마한 점이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생겼다, 이게 바로 빅뱅이론이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진화론적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런 게 생겨나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과정에 대한 보고를 그대로 사실로 믿는

우리들에게 늘 귀찮은 존재로 작용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과학은 우주의 시간을 150억 년으로 추측합니다.
또, 지구의 역사를 46억 년으로 추정합니다, 운석에 대한 방사능 연대측정법을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2억 50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중생대에 공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살아있는 공룡을 직접 본 적은 없고 중생대의 공룡이 화석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기원을 보아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300만 년 전이라고도 하고 250만 년 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크로마뇽인, 아주 최근의 가장 현재의 인간에 가까운 모습의 크로마뇽인이 4만 년 전 사람이래요.

그러니 아담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이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분들은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이 성경의 진실을 진화론이나 빅뱅이론, 과학적 연대측정법에 대해서 진리성을 증명하느라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인류의 시작이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보면 5천여 년에 불과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연대를 다 계산해서 더해보면 6천 년밖에 안 되는데, 실제 문자로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5천 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어려운 것으로 부각되고 있을까요?
우주의 나이 150억 년을 1년으로 축소하면, 인류의 역사는 단 1초랍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 46억 년을 하루로 축소했을 때 인류의 역사는 56초래요.
이런 식의 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귀찮아요, 성경의 창조이야기를 진실로 사실로 믿고 싶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창세기가 물질적인 차원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창조이야기를 전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도요한이 밧모 섬에서 장차 위로부터 일어날 일, 위로부터 다가오는 재림 전까지의 일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를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에요. 태초에 있었던 창조이야기이고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이건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얘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모세의 계시록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단,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모세의 계시록은 있었던 태초의 창조의 일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요.

이렇게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우리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선민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야기는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창조에 관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 플러스, 이걸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상징이나 신화라든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통용되던 창조설화들을 갖다 도용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그런데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안점입니까?
이 창조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계시를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려는 내용은 물리적인 차원의 삼라만상이 창조되어진 과정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조주의 주체성,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신 겁니다.
어차피 창조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한참 역사가 진행된 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창조가 갖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비 객관적이고 순전히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이야기가 전달하려는 주안점이 객관적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객관적 사실을 있게 하신 하나님, 창조가 아니라 창조주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는 얘깁니다.
창조주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알고 이 창조이야기를 이해하면 우주의 나이가 150억년이고 지구의 나이가 46억년인데 아담부터 시작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큰 문제가 안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이라는 자아가 갖는 이름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관계에서 갖는 이름, 하나님의 세계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불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라 불렸겠지요, 아버지라.
그리고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었다면 천사들에게는 어떻게 불렸을지, 하여간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말이 이름으로 붙여진 것은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리고 싶으셔서 이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뜻 안에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하고 전능하시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와 관계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체성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태초에 엘로힘(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행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정한 본문은 인간 창조 이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째 날까지 포함이 되지요,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었으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생각하시는 주체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더불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태초에 주체가 있었다, 태초에 큰 자아가 있었다.
유일한 자아였던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능하시고 강하시다는 뜻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생각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주가 과학적 연대측정법에 의하면 150억년이다, 지구가 46억년이다, 크로마뇽인만 따져도 4만 년 전 사람이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따지면 6000년 전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천년 된 소나무가 있어요. 천년 된 소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천년 된 소나무로 지은 지 1년 뒤에 과학자들이 이 집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소나무를 뚝 잘라서 측정해보니까 천년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천년 된 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료가 천년이 된 거지요, 그렇죠? 집의 역사는 1년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 우주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150억년 된 재료들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초가 150억년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만드신 겁니다.
우주가 150억년이라는 측정법이 맞다 하더라도 창조과학회에서처럼 그 과학적 측정방법이 틀

렸다는 걸 증명하기에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50억년 된 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고, 150억년 된 재료를 만드시기 위해서 단 0.0001초 안에 150억년의 세월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창조에 관한 성경의 보고에서 우리는 창조 자체만 보고 있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에 대한 연구가 깊으면 깊을수록 과학적 측정방법에 의해서 생기는 객관적 데이터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지구? 46억년짜리 재료로 만드신 거죠.
공룡? 2억 2500만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의 화석들, 공룡이 살고 죽고 화석이 된 그 1억년의 과정을 하나님이 1초 안에 다 지나가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또, 1초도 없이 아예 2억 2500만년 된 화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도 않았던 것을 화석으로 만드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체성에서 나오는 창조의 비밀들을 다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과학자들보고 열심히 밝혀내라고 하세요.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뭘 발견해냈다고 하면 벌벌 떨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자꾸 창조가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태도조차도 불신앙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의 창조이야기는 창조 자체보다 더욱 더 강하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주체성을 계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위 하시는 주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주체,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판단하시는 주체, 그 주체성을 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일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주체성을 영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다시 한 번 반복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자체 안에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있

으셨습니다.
아들하나님이 아버지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와 충만하시고, 아버지하나님이 아들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충만하시면서 그 충만함의 기쁨이 나오고, 그렇게 성령님의 교류를 통해서 두 분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창조를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계신 영역 이외의 영역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이외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상하시고 설계하셨느냐 하면 혼돈과 공허로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바다로 설계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였지요.

그러면 왜 혼돈과 공허로 설계를 하셨을까?
하나님 이외의 영역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계시던 영역은 저절로 상대적으로 천국이라 불리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 오늘 본문의 창조 중에 나오는 하늘을 sky라고 한다면 heaven,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펼쳐져 있는 그 하늘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 되는 피조물의 세계인 땅, 우주 삼라만상까지도 땅으로 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영역, 여기를 땅으로 친다면, 여기는 왜 혼돈과 공허와 빠지게 되는 깊음의 바다로 설계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계시던 영역 이외의 피조 세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받아들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돈이 극복됩니다. 공허가 극복됩니다.
깊음의 바다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생각을 품고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그 품고 계신 알이 하나씩 부화될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 여섯째 날에 창조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 주체성, 생각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하나님 이외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선민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이야기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져서 산과 바다가 생기고 해와 달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은하계가 생겨서 돌아가고 질서가 잡혀갑니다.
이렇게 되면 혼돈과 공허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느냐? 아니요, 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그래서 계절을 따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질서과정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 나무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기에는 혼돈이 없습니다, 공허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유일한 피조세계의 인격자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피조의 영역 자체 안에 타락이 일어나고 죄가 들어오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깊음 자체가 죄악 된 상태가 아니고, 이 영역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혼돈을 극복하고,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답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부하는 이 과정이 죄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됩니까?
창세기 1장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대로라면 우리 각자 각자가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에서 태아, 태초의 자아, 가장 큰 자아 가장 큰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고 사느냐,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과정의 반복이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부터 성경에서 쓰여 나갈 얘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 안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깊음으로 설계되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혼돈이 극복되고 공허가 극복돼서 마음이 꽉 찬 상태에서, 가라앉음이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답을 갖고 살려고 하는 바람에 삶은 끊임없이 억제되었던 혼돈과 공허함이 밀려들어오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마음이 깊이깊이 가라앉아서 걱정과 근심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얘기했던 붉은 용과 두 짐승이 가세하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속이기 위해서 바벨론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만들어가면서 인간을 미혹해가는 역사, 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읽어야 바른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를 읽고 읽어야 되는 것이니, 아! 이게 이렇게 맞물려 있지요?
참, 성경이 볼수록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영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입하면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듯이 내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될 것이고, 영입하지 않으면 그 즉시 억제되어 있던 혼돈과 공허함이 밀려들어오고, 내 마음은 바다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면서 침체되고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당장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복됩니다.
저녁은 뭡니까? 활동을 놓는 겁니다. 잠잘 때 활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녁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활동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려면 내 주체성이 십자가에서 저녁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체성이 십자가에서 저녁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행위 하시고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움직여 나가실 때,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려는 지금 억제돼있는 혼돈과 공허와 깊음의 바다가 물러나고, 그 바다 밑에 가라앉지 않고 떠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저녁을 모든 일의 시작으로 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태초, 가장 큰 시작. 태아, 가장 큰 자아입니다.
모든 일을 가장 큰 자아의 주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저녁으로 모든 사건 앞에서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어주시고, 주체 되신 당신 전체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사건까지도 마련하셔서

영원한 저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이 저녁을 통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나의 주체가 죽고 하나님의 주체를 따라 내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